PC용 비디오 카메라 시판

일본 마쓰시타전기가 이르면 오는 9월부터 PC용 비디오카메라를 시판, PC주변기기시장 공략에 나선다.

동사는 다른 경쟁업체들에 한발 앞서 PC용 동화상 입력 비디오카메라를 생산, 시장선점에 나선다.

마쓰시타의 이 시장 진출은 최근들어 PC용 디지털카메라가 시장을 크게 넓혀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미쓰시타는 디지털카메라 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 비디오카메라를 시판할 계획이다.

마쓰시타가 시판할 PC용 비디오 카메라는 기존 비디오카메라와 달리 테이프를 사용하지 않고 동화상을 디지털데이터화해 메모리카드에 기록한다.

이 카메라는 스틸모터를 사용하면 정지화상용 입력장치로도 사용할 수 있다.

이 카메라는 본체와 전용 캡처보드를 조합해 제품화한 것으로 데이터를 캡처보드가 받아 PC상에서 가공하도록 되어 있다.

최근들어 프레젠테이션 및 판촉용으로 PC상에 동화상데이터를 입력하려는 수요가 크게 늘고 있으나 고가의 비디오보드가 필요해 실용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마쓰시타는 이 PC용 비디오카메라를 자사의 PC주변기기 시리즈인 「P3」제품의 하나로 자리매김해 조기 시장진출을 통한 차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고특성 PLL주파수 합성기 계열의 새로운 네가지 소자

1996년 3월, 텍사스주, 오스틴－모토로라의 마이크로 컨트롤러 테크놀로지 그룹(MCTG)의 MOS 디지털－아날로그 디비젼(MDAD)은 새로운 네 가지 향상된 위상 고정 루프(PLL) 주파수 합성기를 소개했다.

MC145170－1은 MF, HF, VHF 밴드에서 직접 사용 가능한 것으로 DC에서 185MHz까지 사용 가능한 단일 입력 주파수 합성기이다.

MC145173 주파수 합성기는 6비트 A/D 변환기와 22단계 주파수 계수기를 가지고 있으며 130MHz까지 사용가능하다. MC 145220은 두개의 이중계수 프리스케일러(Dual Modulus Prescaler)를 가졌으며 40MHz에서 1.1GHz까지 사용 가능한 이중입력 PLL(Dual PLL)이다.

저전압 2.0GHz 주파수 합성기인 MC145202는 64/65 프리스케일러를 내장하고 있다.

신형 다층 PCB 양산

일본 교세라가 차세대 MPU용의 신형 다층 PCB(MLB)를 개발했다.

새 기판은 세라믹과 플라스틱수지(에폭시)를 혼합한 신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으로 기존의 세라믹이나 플라스틱제보다 배선밀도가 높고 전자기기의 소형·경량화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교세라는 세계 최초로 복합소재를 사용한 이 MLB를 오는 9월부터 양산, 새 시장을 개척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고시마 고쿠부공장에 수십억엔을 투입할 예정이다.

「고정밀프린트기판」으로 명명된 새 기판은 박막가공기술로 불리는 단파장의 광전사기술을 사용, 소재의 성질상 후막인쇄기술밖에 사용할 수 없는 세라믹제 기판에 비해 배선밀도를 4배 정도 높였다고 교세라측은 밝혔다.

플라스틱소재만을 사용한 기판은 기계적으로 구멍을 뚫는 기술밖에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세라믹제보다 배선밀도가 낮다.

교세라는 시제품라인에서 1백미크론 베어홀(접속구멍)을 형성할 수 있는 고정밀프린트기판을 완성, 일부고객을 대상으로 샘플출하하는 한편 50미크론급도 개발중이다.

미국반도체 장비시장 전망

올해 미국 반도체 제조장비업계의 영업실적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시장조사회사인 페인웨버사가 전망했다.

이 회사의 구나 밀러 분석가는 칩 업체들의 투자집행이 보류되는 경우가 늘어 주요 반도체 제조장

비 업체들의 금년도 순익 예상치를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4백억달러를 기록한 반도체 칩 업체의 투자액은 올해 4백99억달러로 23% 증가하겠지만 내년에는 당초 예상됐던 16%보다 훨씬 낮은 6% 증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 영향으로 최대의 제조장비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의 예상 순익은 당초 주당 3.90달러에서 3.85달러, 일렉트로글라스는 1.95달러에서 1.90달러로 줄어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램리서치는 4.70달러에서 4.65달러로, 노벨러스는 6.40달러에서 6.15달러, 실리콘밸리 그룹은 2.25달러에서 2.20달러, 텐코 인스트루먼츠는 2.50달러에서 2.40달러, 테라다인은 2.25달러에서 2.00달러로 주당 순익이 각각 줄어들 전망이다.

고속통신용 광스위치 개발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바꾸지 않고 그대로 처리하는 광스위치가 일본전신전화(NTT)에 의해 개발됐다.

이에 따르면 NTT는 몇개의 광신호를 묶어 보내는 초고속 광통신에서 수신측이 특정의 광신호를 분리, 배분하는데 사용하는 소형 광스위치를 개발했다는 것이다.

이번 개발은 스위치 내부의 소자에 제어용 빛을 비춤으로써 매초 1백G비트급의 광다중신호로부터 특정의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하지 않고 분리할 수 있다는 점이 최대 특징.

이는 광신호를 그대로 나누는 광교환기의 기초기술로 차세대 초고속 광통신망 실현에 기여하는 성과라고 그 의의를 강조했다.

NTT가 개발한 광스위치는 비소나 유황을 주성분으로 하는 길이 4m의 광섬유를 스위치 소자로 사용한다.

통신망에 연결한 광섬유로부터 광다중신호를 입력하는 동시에 제어용 광신호도 입력해 특정의 신호만을 분리한다.

실제로 NTT는 입력으로 매초 4G비트의 광다중신호, 제어용으로 매초 4G비트의 광신호를 넣고 실험해 특정신호를 분리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론적으로는 매초 1백G비트 이상의 광다중신호에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스위치는 광신호의 통과·차단기능이나 복수의 전송로로 나누는 기능을 하는 장치로 현재는 광신호를 일단 전기신호로 변환, 전자회로에서 처리하고 이어 다시 반도체 레이저를 이용해 광신호로 하는 방법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해 차세대를 겨냥,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환하지 않고 그대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광신호 처리속도의 향상에 보다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단일회선 통신시스템 개발

단일 케이블TV회선을 통해 전화와 케이블TV서비스는 물론 고속의 데이터까지 전송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세계 최초로 호주에서 개발됐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지는 최근 호주의 케이블TV업체인 옵터스비전이 이같은 네트워크 시스템을 개발, 성공적으로 시험을 끝내고 조만간 상용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옵터스 비전은 현재 영국의 케이블TV업체들이 전화와 TV서비스를 동일회선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자사 시스템처럼 데이터전송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네트워크는 세계 최초라고 강조하고 이에 따라 미국 모토롤러와 ADC텔레커뮤니케이션스사로부터 서비스에 필요한 장비를 공급받는대로 서비스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단일회선 통신서비스는 통신업체를 비롯 케이블TV업체·전력업체·인터넷 제공업체들이 추구해온 서비스로 잠재수요가 많지만 기술력 부족 및 네트워크관련 업그레이드 비용이 막대해 개발이 지연돼왔다.

이와 관련, 옵터스 비전은 이번 네트워크개발과 함께 네트워크구축에서부터 부가서비스에 나설 경

우 이 시장에서 경쟁업체들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세대 광자기 디스크 공동 개발

일본의 후지쓰(富士通)와 소니, 네덜란드의 필립스 등 일본과 유럽의 전자 8사가 컴퓨터 정보 기억매체인 광자기디스크(MO)의 차세대제품을 공동개발, 오는 97년중 판매에 나설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 제품은 기억용량이 최신형 MO의 약 10배인 6~7기가(1기가는 10억)바이트에 달하고 데이터의 기록과 재생도 기존 기억매체 보다 훨씬 간편하다는 것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이 제품은 도시바, 마쓰시타 등의 주도로 개발돼 올 가을에 본격 실용화될 디지털비디오디스크(DVD)와 멀티미디어용 대용량기억매체의 주역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제품개발에는 후지쓰, 소니, 필립스외에 히타치제작소, 히타치맥셀, 샤프산요전기 올림포스공업 등 모두 8사가 참여한다. 이들 8사는 올해안에 상세한 제품규격을 제정한 다음 내년중 각사가 MO 매체와 구동장치를 내놓기로 했다. 판매가격은 MO매체 장당 1백달러이하로 책정하고 기존 CD롬이나 DVD와 호환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개발한다는데도 잠정 합의했다. 8사는 이를위해 우선 차세대 광자기디스크의 크기를 직경 3.5인치인 현재의 MO보다 크게 만들어 직경 5인치의 CD와 통일시키기로 했다.

일, PHS 데이터통신 실용화

일본에 간이휴대전화(PHS)를 사용한 고속 데이터 통신서비스가 등장한다.

일본 PC통신업체인 니프티, PC-VAN과 노무라종합연구소, NTT 데이터통신은 내년 봄부터 PHS를 사용한 고속 데이터 통신서비스를 각각 개시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특히 PHS의 고속 통신규격을 채용하기 때문에 휴대전화와 비교, 전송속도가 약 3배 빠르고 신뢰성도 높아 PHS와 소형 PC를 결합할 경우 실외에서의 인터넷이나 전자메일의 이용이 보다 용이하게 된다고 한다.

PHS의 고속 데이터통신과 관련, 지난 4월 우정성 등이 중심이 돼 표준규격「PIAFS」를 마련했다.

현재 PHS의 데이터 송수신 속도는 디지털 휴대전화와 같지만, 내년 봄에는 거의 3배인 초당 32kb의 데이터통신이 실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프리자리오" 신제품 발표

미국 컴팩 컴퓨터사가 스피커 및 3차원 그래픽기능이 강화된 홈PC「프리자리오」신제품군을 발표했다.

이번 프리자리오 홈PC 신제품은 최근 대대적 조직개편에 따라 3개로 나눠진 그룹의 하나인 컨슈머 부문에서 내놓은 첫 제품인데 컴팩은 이번 신제품을 분기점으로 향후 프리자리오란 통일된 상표아래 홈 PC시장 공략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번 신제품의 디자인도 가전제품의 특성을 살려 소비자들에게 친근한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으며 비디오 게임기능을 보다 강화한 한편 인터넷 접속도 쉽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스피커와 3D그래픽 시스템은 각각 하몬 인터내셔널 시스템스와 비디오 로직-NEC가 각각 개발한 제품이다.

컴팩은 이와 함께 인텔이 개발한 비디오 폰 시스템과 음성 및 데이터를 동시에 디지털로 전송하는 이른바 DVSD기술을 채용한 모뎀도 선보일 계획이다.

컴팩은 또 가정용 제품에 대한 이미지 통일화 작업의 일환으로 프리자리오라는 이름의 휴대형 컴퓨터도 곧 내놓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2년연속 세계 PC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한 컴팩은 그러나 가정용 PC시장에서는 패커드 벨과 애플컴퓨터에 이어 3위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지난해 데이터퀘

스트 조사).

더구나 가정용 시장점유율도 94년 11.5%에서 지난해 10.9%로 떨어졌으며 패커드 벨의 33%와는 커다란 격차를 보이고 있다.

ADSL 시장 진출

Intel은 노스 캐롤라이나주 Durham에 있는 BroadBand Technologies(BBT)와 제휴, 급성장하고 있는 ADSL(Asymmetrical Digital Subscriber Line)시장에 진출하기로 했다.

Intel은 PC 또는 TV용 Set Top Box에 장착할 수 있는 ADSL 아답터를 개발해 BBT에 이를 라이센스할 예정이다.

ADSL은 일반 전화 회선을 통해 케이블 모뎀과 비슷한 속도에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해주는 동시에, 비용은 케이블 모뎀보다 월등히 저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전화 회사들은 케이블 TV 업계의 고속 인터넷 서비스 및 비디오 서비스에 대항할 수 있는 방안으로 ADSL 기술을 채택하기 시작했는데, US West, Bell Canada등이 ADSL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다.

정보통신 업계, 기업 합병 급증

북미주 지역 정보통신 업체들간의 매입 합병이 급증하고 있다.

뉴저지주 Fort Lee에 있는 Broadview Associates LLC의 집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정보통신 업계의 매입 합병 금액은 9백70억 달러에 해당했는데, 이는 지난해 전기간 동안의 실적 830억 달러를 이미 능가한 규모다.

동시에, 매입 합병이 가장 활발한 분야는 네트워크 보안 소프트웨어, 인터넷 서비스, 통신 및 컴퓨터 네트워킹인 것으로 나타났다.

0.9 볼트 마이크로콘트롤러 개발

Motorola Inc. 산하 Semiconductor Products Sector는 0.9-볼트에서 작동하는 8-bit 마이크로 콘트롤러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Motorola에 따르면, 이 칩은 "68HC08"시리즈에 속하는데, 이에 관한 내용은 오는 9월 스위스에서 열리는 European Solid-State Circuits Conference(ESSCIRC)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Motorola Semiconductor Sector의 Andreas Wild씨는 이 칩을 Motorol Paging Group과 협력해 개발했다고 밝히고, 이번 작업을 통해 개발된 공정 기술은 휴대형 전화기,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등 배터리로 작동하는 대부분의 기기에 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ATM 네트워크용 칩세트 개발

Texas Instruments Inc.(TI)는 ATM(Asynchronous Transfer Mode)네트워크의 데이터 관리 기능을 향상시켜 주는 "HyperSAR + (Hyper Segmentation And Reassembly)"칩세트를 개발, 1만 세트 기준 120달러에 4/4분기 부터 대량 공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TI에 따르면, 이 칩세트는 "TNETA 1575"와 "TNETA 1585"칩으로 구성돼 있는데, Ethernet, Token Ring 및 Frame Relay 방식 네트워크에 ATM uplimk 기능을 제공하며 ABR KAvailable Bit Rate)표준 또한 지원한다. 캘리포니아주 Santa Clara에 있는 네트워킹 장비 개발업 3 Com Corp는 TI의 HyperSAR + 칩세트를 채택한다는 계획을 이미 확정했다.

HyperSAR+ 시제품은 8월부터 공급될 예정이다.

노트북PC 기능특화

일본 NEC가 빠르면 오는 9월부터 노트북PC사업을 기업용과 가정용으로 분리, 용도별 기능특화를 통해 판매체제를 강화한다.

NEC는 시장별 소비자 요구에 맞춰 제품을 특화, 급성장하고 있는 노트북PC시장의 매출확대를 꾀할 방침이다.